

고후7:1~16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I. 들어가면서- 은혜는 반드시 선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엡2:8,10**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꽃피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엡2:8,10>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이를 가리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으로의 이중적 부르심을 포함한다. 우리교회 파송선언문의 서문(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건강한 신앙을 함께 만들어 가는...)은 이러한 하나님 은혜의 특성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써 구원의 감동을 누리며 선한 삶을 힘쓰는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경건은 어떻게 지속가능할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제시한다. 바울은 앞선 내용인 **고후6:1**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였다. 그리고 **6:2~18**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역과 신앙의 모습을 교훈하였다. 이어지는 **고후7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서적이며 지적인 반응으로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조하여 거룩함을 이루도록 설명한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II. 하나님을 두려워하면...(1~4절)

1절 앞, 본문을 시작하며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애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호칭한다. 그러면서 **6:14~18**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상이나 세속의 삶과 짝할 수 없음을 강조했던 것을 요약하며 **1절 가운데**에서는 일차적으로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요청한다. 여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μολυσμοῦ **몰뤼스무**)은 우상숭배적 관행(**고전10:19~21**)과 세속적인 방식을 아우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에 이전의 타락한 세속적 삶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친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1절 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권면한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 형성된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분노하신다. **창2:17**은(“그러나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이 주어질 것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어질 때 누군가의 죽음(**율법에서는 두로 정결한 동물**)을 대신하는 제도(**희생 제사**)로써 그 거룩함을 집행하셨다. 물론 구약의 희생 제사는 일회적이며 임시적일 수밖에

에 없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확증한다.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였다. 먼저, 이사야(사53장)는 대신 고난 받을 중에 관해 예언했고, 예레미야(렘31:31~34)는 율법의 의미를 완성하는 새 언약이 진행될 것을 예언했으며, 에스겔(겔36:26~28)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예언했고, 호세아(호2:19~23)는 하나님과 인간이 새롭게 혼인하는 내용을 예언했다.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사랑의 확증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고 핵심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성도는 죄에 대한 경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제 바울은 2절, 이미 6:13에서 부탁했던 것처럼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과 동역자들)을 받아달라고 화해를 청한다. 동시에 그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성도나 교회를 더럽힌(또는 무너뜨린, εφθείραμεν에프테이라멘) 일도,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음을 당당히 밝힌다. 이와 같은 바울의 발언과 실제 사역의 모습은 1절의 교훈처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이루려는 경건한 열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울은 3절에서 행여나 그들을 꾸짖는 것처럼 오해를 줄까 싶어 그들과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임을 알린다. 이는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영적 동질감이나 친밀감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갈6:14(“...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와 갈2:20(“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에서 소개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영적인 지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와 불경건의 세속적 방식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격려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4절, 바울은 자기를 불신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큰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변함없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사역 중에 겪는 환난 속에서 그들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정서적인 여유는 앞서 4:5(“...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에서 밝힌 것처럼 성도(와 교회)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며, 그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종이라는 목회자로서의 자기 인식에서 형성된다. 사실 목회자들은 주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종들이기에(요21:15~17, 벰전5:2) 반드시 주님께 평가받을 것이다.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이 주님의 종임을 잘 기억하고 적절한 권위와 신뢰를 가져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주권과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요소가 불만족스러울 때 전체를 왜곡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미성숙한 태도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부족함과 함께 긍정적이며 자랑할 모습을 공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지금까지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교훈한다.

III.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5~16절)

이어지는 5~16절은 2:13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바울은 3년 정도의 에베소 사역(고린도전서를 보낸 곳)을 마무리하고(행19장,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테러의 위협이 발생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역자인 디도를 고린도에 앞서 보내어 고린도교회의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렸음에도 고린도에서 돌아올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계속 걸음을 옮겨 마케도니아까지 갔던 것이다. 이윽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나 교회 상황을 들은 뒤 고린도후서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5절,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조금도 쉴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마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빌립보, 데살로니가 등)도 외부로부터 다양한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었을 것이며,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시험이 발생했을 것이다. 지상의 교회는 안팎으로 영적인 싸움거리나 시험이 늘 있기 마련이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그냥 모른 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함께 씨름하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6~7절,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곧 고린도교회 안에 바울을 불신하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오히려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으며,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잘못을 뉘우쳤고, 오히려 바울을 많이 염려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교회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것은 8~9절, 바울이 보내었던 편지(고린도전서 또는 고린도전서+고후2:3~4의 눈물의 편지 등)가 효과가 있었다. 그 편지를 보내고 처음엔 너무 세게, 직설적으로 교훈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후회도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며 잘못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함으로 회복되었기에 인간적인 상처를 주지 않게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10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슬퍼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다. 결국 디도를 통해 확인된 고린도교회는 11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갖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7가지로 설명한다. 더욱 진지해졌고(σπουδην스푸덴, 간절함- 깊은 정성이 담긴 행위), 무죄를 증명하게 되었으며(απολογία안폴로기안, 잘못을 인정하여 용서를 구함), 더욱 분노하게 되었고(αγανακτησις아가나크테시스, 자신에 대한 분노),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φοβον포본, 하나님을 두려워함),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επιποθησιν에피포테신, 바울의 방문을 사모함),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ζηλον젤론, 열심을 품음), 잘못된 자를 벌하게 되었다(εκδικησιν에크디케신, 스스로 처벌함).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죄를 정리하고 경건함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게 된 것이다.

이에 바울은 12절에서 덧붙이기를 자신의 편지는 불의했던 특정인이나 불의를 당했던 자들(바울을 포함하여)을 겨냥했다기보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안내하여 바르고 건전한 경건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바울의 소망대로 고린도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 속에 퍼져있던 죄성과 악행을 슬퍼하고 스스로 끊음으로써 거룩함을 회복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 경건과 개혁의 시작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고린도교회로 인해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13절, 비로소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디도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더욱 기뻐했다. 그것은 14절,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잘못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자랑을 했었기에 이번 바울의 편지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을 회복하게 되어 그 자랑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5~16절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의 말에 고린도교회가 순종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하며 섬겼던 모습을 통해 디도는 더욱 고린도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바울 역시도 더욱 그들을 신뢰하게 되어 기쁘다고 인사한다.

목회자나 성도 그리고 교회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는 모습이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이 같은 기쁨을 표현했다(2요4-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3요4-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힘쓰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IV. 나오면서- 은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본문을 정리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권징을 시행하여 다시 거룩함을 이루게 되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와 세속의 방식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고 가르치셨다(마10:28,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은혜가 지속되도록 경건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

이와 같은 바르고 경건한 신앙은 예배로써 표현된다(히12:28,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러기에 매 주일의 공예배를 우리 삶의 기초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 간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주일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되고 신령한 위로와 기쁨이 힘 있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한다.

* 찬송가 20장